



# 새해 빛나는 희망을 품고 아리랑 아리랑 고개 넘세

소리꾼의 '제주섬 아리랑'  
아리랑 가락에 민중의 삶  
4·3과 분단의 아픔까지  
"전승 취약한 제주 아리랑  
이 기회에 널리 불려지길"

이어도를 꿈꾸는 이들에게 360여개  
오름 하나하나, 파도 일렁대는 제주  
바다가 아리랑 고개가 아니었을까.  
아리랑, 아리랑 고개 넘어 부르던 그  
가락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무대에  
올려진다. 민요패 소리꾼이 2019년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으로 펼치는  
'제주섬 아리랑'이다.

이번 공연은 다른 지역과 달리 이  
땅에 널리 전승되지 못했던 '제주 아  
리랑'이 두루두루 퍼지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기획했다. 사상과 이념,  
체제를 뛰어 넘어 남과 북을 하나로  
묶어주는 문화유산인 아리랑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제  
주 4·3이 분단의 아픔과 잇닿아 있는  
을 노래한다.

'제주섬 아리랑'은 이곳에 사는 민  
중들과 고락을 나눈 아리랑의 속  
삭임으로 시작된다. 제주민의 삶과  
역사 속 수난이 아리랑 가락에 녹아  
있음을 보여주듯 제주해녀들의 출가  
물질과 신나는 귀향, 해녀 항일 투쟁,  
해방의 기쁨과 4·3의 고통, 통일의  
염원 순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기나긴 질곡의 세월을 타고 넘는  
동안 '기쁨의 아리랑', '장백의 새  
아리랑', '새 아리랑', '이도도 아리  
랑', '정선 아리랑', '강원도 아리  
랑', '밀양 아리랑', '진도 아리랑',  
'조천아리랑', '제주아리랑', '통일



민요패 소리꾼이 제주에서 전해온 아리랑 가락을 바탕으로 제주민의 삶과 역사를 담은 '제주섬 아리랑'을 공연한다.

아리랑' 등 술한 아리랑이 불려진다.  
4·3 70주년을 지나 3·1운동 100주년  
이 되는 해에 아리랑이 그래왔듯 다  
시 새로운 100년을 그리며 희망의  
소리로 막을 내린다.

대본 김형섭·안민희·안희정, 연출  
김형섭, 안무 고춘식, 작곡 고현민  
양윤호 진성호 박순동 현희순씨. 문

석범 양윤호 주세연 김진선 김지인  
고현준 김순덕 김향례 등이 출연한  
다. 국악놀이터 채움 단원 등이 연주  
를 맡는다.

공연 일정은 이달 27일 오후 7시,  
28일 오후 4시 문예회관 대극장. 관  
람료 무료. 문의 064)721-4967.

진성희기자 sunny@ihal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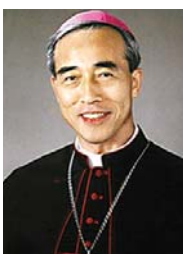
## “갓난 아기가 보여준 평화에서 배워야”

강우일 천주교제주교구장  
성탄대축일 맞아 사목서한

천주교제주교구장인 강우일 주교  
(사진)는 24일 “지극히 높은 곳에서  
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란  
제목의 2019년 성탄대축일 사목서

한을 발표했다.

최근 국회가 5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을 처리한 걸 서두  
에 꺼낸 강우일 주교는 “우리나라 국  
민들 중에 단 돈 1만원이 없어서 진  
열대의 우유를 훔칠 정도로 가난에  
시달리는 이들이 생겨나는데, 국민  
을 위해 봉사하라고 권력을 위임 받  
은 의원들은 세계 최고수준의 연봉



1억5176만 원을  
누리며, 생명을 죽  
이는 무기구입에  
전문학적인 예산  
을 너무나 손쉽게  
통과시키고 있다”  
며 “우리가 만들어  
내는 이 모순적 현실은 인류 역사의  
발전과 문명에 너무나 역행하는 반  
인간적, 야만적인 처신임을 정치 지  
도자들은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우일 주교는 “구세주 예수 그리

스도는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오셨  
다. 예수님이 남기신 평화는 힘의 균  
형으로 만들어져 언제 무너질지 모르  
는 위태로운 잠정적 평화가 아니라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운 가장 무  
력한 갓난아기가 보여주는 평화다”라  
며 “아기는 누구의 것도 탐내지 않  
고, 빼앗지 않고, 감추지도 않으며 모  
든 것을 내어놓는다. 그리하여 누구  
도 아기를 적으로 여기고 맞서지 않  
는다. 우리 모두 이 갓난아기에게 배  
워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성희기자

### 문화가 쏘지

제주영화제 송년 특별시사

사단법인 제주영화제(이사장 권범)  
는 이달 30일 오후 7시 30분 CGV  
제주노형 6관에서 관객후원 회원 사  
전 예약자 대상 송년 특별시사회를  
연다.

이날 상영작은 이탈리아 현존 최  
고의 감독으로 통하는 주세페 토르  
나토레와 영화 음악의 거장 엔니오  
모리코네가 만난 ‘피아니스트의 전  
설’이다. 4K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  
전으로 2020년 1월 1일 국내 개봉에  
앞서 제주영화제에서 선보인다. 일  
반 유료 관객은 선착순 30명 예매를  
받고 있다. 문의 748-0503.

해향문화회 하반기 작품집

제주 해향문화회(회장 김정택)가 2019  
년 하반기 ‘해향’(13호)을 내놓았다.  
이번 호는 김정택의 권두언 ‘동백  
꽃 배지’와 김선구의 권두 에세이  
‘한국식 나이’를 실었고 ‘만반 통달  
선지식 수암 스님’과 대담을 엮었다.

집중조명 특집엔 수필가 조명철의  
대표작, 작가 연보, 작품 세계 등을  
소개했다. 시·시조, 수필, 동화 초대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회원 작품으로  
는 30여명이 생산한 시·시조, 수필을  
수록했다. 신행수기 수상작,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문화재 탐방, 소리랑  
카 성지순례기도 묶였다.

고재건 수필집 ‘부드러움이...’

고재건 전 제주대 교수가 만족할 줄  
아는 삶, 유연함, 아름다움, 멈춤의  
지혜를 담은 수필집 ‘부드러움이 샘  
물처럼’(열림문화)을 펴냈다.

정년 퇴임 이후 수필 공부에 몰두  
해왔다는 저자는 수필 쓰기를 통해  
참된 자아와 진실된 삶의 의미를 성  
찰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했다.  
그는 이번엔 ‘나는 부드러운 사  
람’, ‘고향의 불나루’, ‘갯지스강  
의 풍경’ 등 7부에 걸쳐 부드러움의  
본질을 밝히려 애쓴 글을 수록했다.  
마지막 장에는 시(詩)수필 12편을  
소개했다.

중앙여고 국악관현악 공연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교장 조동수)  
국악관현악단(지휘 양지혜)은 이달  
30일 오전 10시30분과 오후 1시30분  
학교 강당에서 공연을 펼친다.

이날 공연에서는 국악관현악으  
로 ‘축제’, ‘신밧놀이’, ‘고구려의  
춘’, ‘프런티어’ 등을 연주하고 국  
악 앙상블로 ‘흥연’ 등을 빛낸다.  
가야금 병창으로 ‘너영나영’, ‘아  
리랑’도 들을 수 있다. 제주중앙여  
고 국악관현악단은 1993년 창단했  
고 현재 39명이 학업 틈틈이 우리  
가락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 고재만의

#### 제주어기립한관

<184>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으깬이 풀없져. “아- 쇄똥똥이 하영 쫓겨져. 솔똥도 이신겨. 망똥이래  
담아사 훑건디 잘 물른 것만 좇영 담아사겨. 아고게 저디 버섯도 배려점  
신디 버섯은 아똥이나 하영가민 안 똥어. 아- 이디 툇 우리 누님 꾀이  
곰들락흔 돌맛이 툇 도 신겨. 꿩기풀도 싹고. 툇이 희영 흥겨 출말로 곱  
다겨. 소똥이도 이디저디 잘도 핫저겨. 집이 신 우리 어똥 치메 색갈촉  
똥 흥겨. 경흔디 소똥이 불린 약초로도 쓴똥 흥난 하영 팡 가사 하겨. 하  
르바님도 좋똥 훑겨어. 에고, 제기제기 담양 가사겨.”

#### \* 제주어 풀이

- \*솔똥(소낭똥생이, 솔도로기, 솔똥똥, 솔똥이, 솔똥오지, 솔똥): <이름> 솔똥을.
- \*망똥이(망대기, 망태, 똥똥이, 똥똥이): <이름> 주로 곡식 따위를 담아두거  
나 담아 나르거나 할 때 쓰려고 짚을 곱게 엮어 만든 망태.  
용도나 크기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함. ‘똥똥이, 착부지’ 따위.
- \*훑건디: 할 것인데.
- \*소똥이(스똥이, 스똥이, 소똥이, 소똥이, 수똥이, 촌수똥이, 촌소똥이):  
<이름> 엉겅퀴. 툇 고아 먹으면 신경통에 좋다고 함.  
\*치메(치메): <이름> 치마.
- \*색갈촉똥 흥겨: 색갈과 같은 것이.
- \*에고, 제기제기 담양 가사겨: 아이고, 얼른 담아서 가자.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음역>음역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어똥>대어  
똥씨(대명사)/<똥>똥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도>도씨(조사)/<똥소>똥소씨(의문말)/<똥말>똥말  
씨(속말)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저, 한국문화사, 1991)

## 새해 첫날 남극노인성 보며 안녕 기원

무병장수의 별을 보며 새해의 무사  
안녕을 기원해보자. 사단법인 탐라  
문화유산보존회(이사장 윤봉택)는  
2020년 1월 1일 경자년(庚子年) 새  
해 첫날을 맞아 오후 6시부터 11시  
까지 서귀포시 칠십리 야외공연장에  
서 ‘새해, 310광년 건너는 무병장수  
의 별, 남극노인성을 만나다’를 주제  
로 남극노인성 페스티벌을 연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축제는 새해  
첫 남극노인성의 별빛을 보며 기대  
민안과 가정의 화목, 무병장수를 염  
원하는 화합의 장으로 기획했다. 오  
후 2-6시 사전행사에서는 밴드 연주  
와 축하공연 속에 새해맞이 휘호 쓰

기, 다도체험, 기복(起福) 떡 먹기가  
이어진다. 오후 6-8시30분에는 분  
행사로 천하태평무, 헌다(獻茶)의  
례, 무료 떡국 나눔이 진행된다. 오  
후 10시30분-11시에는 삼매봉 남성  
정에 올라 남극노인성을 보며 새해  
소망을 빌고 무병장수를 염원하는  
시간이 예정되어 있다.  
윤봉택 이사장은 “남극노인성의  
찬란한 별빛이 비추는 무병장수의 도  
시 서귀포에서 새해 첫 별빛과 함께  
서로의 안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하  
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  
다. 문화재청 생생문화재활용사업이  
다. 문의 064)739-2017. 진성희기자

###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
-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증지카드) 소지자(1급~6급)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기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기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 보청기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  
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  
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  
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  
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  
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로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  
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  
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  
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  
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  
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  
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  
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  
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  
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  
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  
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  
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  
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  
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  
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  
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  
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  
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  
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화  
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  
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9-GN00079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 064)755.1005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화북